

NEWS

벤·처·관·련

정보통신부, 임베디드SW 정부지원 사업 확대 시행

정보통신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현재 개발 용역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임베디드 SW 시장을 라이선스·로열티 기반의 시장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임베디드 SW 솔루션을 발굴해야 한다. 올해 과제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높은 정보통신부는 수요기업 담당자와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의 사업화 필요성, 시장성 등을 엄밀히 평가한 후 10건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벤처기업 인증 2년 연장 추진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4월 10일 오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대대책회의'에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연구개발기업은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과 달리 금융리스크가 거의 없고 변동요인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1년마다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벤처기업 확인을 2년으로 연장하면 인증 때 필요한 60만원 상당의 평가·확인 수수료와 재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비용 등 연구개발기업들에 다소나마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1만 2,456개로 이 중 연구개발기업은 1,604개다.

중기청, 2006 중소기업 컨설팅산업 백서 발간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컨설팅 산업규모와 컨설팅 수요 및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6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컨설팅사 554개, 중소기업 1,262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컨설팅산업 실태, 컨설팅사 현황, 컨설팅 수요 및 만족도, 컨설팅산업

발전방안 등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컨설팅시간의 전문화·대형화 유도를 위해 쿠폰제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사(컨설턴트) 참여요건 강화, 타 전문분야 컨설팅시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및 컨설턴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강화(시험과목 : 4과목 → 6과목, 실무수습 : 120시간 → 150시간), 컨설턴트 성장단계별 교육 등의 시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를 통한 생산혁신 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해진)은 '02~'06년도 중소기업생산정보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구축성과가 우수한 신영금속(주) 울산공장 등 9개 사의 구축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생산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입 전·후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과학기술부, 제3차 한-이태리 과학기술포럼 개최

과학기술부는 이태리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제3차 한·이태리 과학기술포럼」을 4. 19(목)~20(금) 이틀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 30여 명은 천체물리(Astrophysics), 항공우주(Aerospace), 분리막 기술(Membrane Technologies), 생명공학 및 환경과 관련한 화학(Chemistry in Biotechnology and Environment) 등 4개 첨단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보화 낙후지역 봉사할 '내고향 IT 봉사단' 모집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정보화에 낙후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IT 자원봉사를 할 '내고향 IT 봉사단'을 모집한다.

'내고향 IT 봉사단'은 전국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학생으로 구성하여, 정보 취약지역에서 정보화교육, PC점검·수리, 정보화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의 IT 전도사다.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5~7명씩 한 팀으로 구성해 각 지역별 체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 중소기업용 특허관리 프로그램 배포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요즘 자사의 기술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의 획득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4위(2006년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특허 대국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자사의 특허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기업체들의 경우 특허관리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이고 핵심 특허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허전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몇 억 원에 이르는 등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허 관리 프로그램인 c-MAPS를 개발, 이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c-MAPS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엠에이피에스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mapsip.com)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c-MAPS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인천시는 2007년 홍콩 전자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007 홍콩 전자박람회(Hong Kong Electronics Fair 2007)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2,800여 개 사가 참가한 가운데 48,000여 명의 바이어가 내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품목은 멀티미디어, 카오디오제품, 가전제품, 전자기기, 자동차 기기, 보안, 정보통신기기 등이며, 아시아 최대 전자박람회로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홍콩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 홍콩을 교두보로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모집업체는 10개 사로서 접수 마감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참가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팩스,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상품 해외 선전

충북도내 중소기업체들이 일본에서 열린 우수상품전에서 괄목할만한 계약성적을 거뒀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전국 99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동경 도립산업무역센터에서 열린 상품전에서 계약 추진 27건에 1,432만 5천불의 계약 성과를 이룩하였다.



ETRI, 장애우를 위한 IT도우미 앞장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IT강국 코리아'를 견인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장애우에게도 편리하고 재미있는

IT세상을 활짝 열어 주기 위한 선도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TRI에서 현재, 장애우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인 주요기술로는 ▲선·후천적 중증장애우를 위한 '마우스·휠체어 제어시스템' 및 '뇌파 키보드' 기술을 비롯 ▲색각장애우를 위한 '색상변환기술'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키보드 시스템' 과 '한소네 컴퓨터' ▲청각장애우를 위한 '골도전화기 및 헤드셋'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는 ▲'지능형로봇' 웨버(Wever) ▲임베디드 SW의 '큐플러스' ▲텔레매틱스,USN의 'RFID기술' ▲IT-BT기술의 융합이 낳은 '바이오 셔츠'와 '인체통신' 기술 ▲디지털홈의 '차세대 PC'와 '웨어러블 PC'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중 생체인식 시스템' ▲광대역 통합망 분야의 'FTTH(광가입자망)'와 '화상전화기' ▲전파방송 분야의 '자막추출' 기술 ▲디지털 홈 기술 ▲제스처 인식기술 등이다. 이러한 장애우를 도울 수 있는 IT기술들은 현재, 기술이전을 통한 점진적인 상용화로 거동이 불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덕원바이오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은 포항 소재 산업체인 덕원바이오(대표 이성형)와 산·연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생약재를 이용하여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의 지질 증가로 나타나는 고지혈증과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건강기능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 외 공동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보유 장비를 상호 이용함으로써 학술, 기술 및 정보의 원활한 교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유기술 안내서' 발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채남희)은 1996년 창립 이후 현재 까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을 집대성한 '보유기술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기계, 전기신호, 전력, 궤도토목 분야의 특허 379건, SW 프로그램 633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유기술 요약서에는 기술명을 비롯해 발명자와 기술개요, 특징, 기술개발 상태, 희망기술 거래유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방법과 업무처리 절차, 기술이전 신청서 등도 첨부 되어 기술이전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보유기술 안내서'는 철도관련 기업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성과의 철도현장 적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특구 바이오벤처, 세계 최고의 '항체 인간화 기술' 특허 취득

대덕특구 내 코스닥등록 기업 중 하나인 '제넥셀-세인'(대표 김재섭)은 항체신약 개발에서 세계 경쟁력

을 확보할 원천 기술 '항체 인간화 기술(antibody humanization)'을 개발 하고,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또한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이 기술의 특허(정식명칭 : 'SDR-그라프팅')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항체 인간화 기술(antibody humanization)은 쥐 등의 동물을 이용해

만든 항체를 사람에게 주사할 경우 면역거부반응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에서 개발된 후보 항체를 사람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항체 인간화(humanization)'라 한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인해 제넥셀은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항체인간화 기술을 가진 회사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으며, 세계 항체 공학 원천기술 무대에서 미국의 PDL사와 쌍벽을 이루는 단 2개의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여성벤처협회 대전지회 발족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는 4월 24일 대전지회 발대식을 열고, 박경숙 모두텍 대표이사(대덕특구 여성벤처포럼 위원장)를 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추대된 박경숙 대전

지회장은 KAIST와 전자통신연구원(ETRI)을 거친 정통 엔지니어 출신이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창립식에는 허은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박인숙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최순자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민병주 원자력연구원 연구자원관리단장 등이 참석해 대전지회 창립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은 "대전·충남지역은 20만 중소벤처기업의 보금자리이자 우수연구기관을 보유한 지식기반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서, 인프라와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한 국가경제의 성장 중추"라며 "이 지역의 여성벤처기업의 역량을 주도하는 중심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결성 의지를 밝혔다.

정 / 정 / 합 / 니 / 다

지난 105호 벤처나우 14페이지 바이로메드 이미지가 제작사고로 오기됐음을 알립니다. 바이로메드 이미지를 다음으로 정정합니다.

